

## 새만금사업, 대선 공약화... '전북몫' 찾는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통해 '전북 몫 찾기'에 추진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이 2016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17년 새만금 분야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에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권 핵심사업으로 추진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SOC구축, 용지조성은 물론 수질개선사업 등 주요현안 해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당체제와 정치적 공조를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만금사업은 철도와 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그동안 갈등상황이었던 송전선로 설치도 완료됐으며 전력시설 지중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 ▶ 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계획 발표

수질개선사업 등 주요현안 해결에 정치권과 공조

방치된 휴폐업축사 철거 가속 사육두수 증가요소 제거

또한 총리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 부처간 정책조정 및 수월해졌고 투자자와 개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법제화됐다.

새만금 유역 수질도 양궁 주교제 준설, 전지인계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수질(T-P)과 복합악취가 각각 61%, 50%가 개선되는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를 새만금 기본계획상 민간투자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선도시업 가시화 단계 마무리 연도로 기본인프라 구축 활성화 인식 확산이 가능하고 농업용지 1개 공구 최초 완

공 및 산업용지 1개 공구 추가 완공 등 본격적으로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SOC 구축이 가속화 될 것이고 올해 말이면 동서도로(2축)는 교량 시공 및 사석쌓기 완료 등으로 47%의 공정율을 달성하고 남북도로(2축)는 오는 5월 착공돼 본격 공사가 추진된다.

신항만도 10월이면 호안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고 공항은 올 말까지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완

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농업용지와 산업단지가 추가 완공될 예정이며 올해 말이면 기 완공된 방수제 9개 공구, 농업용지 총 7개 공구 중 1개 공구가 신규 완공 등 당초 목표대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며, 체류형 관광 및 체험을 위한 핵심기반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환경오염저감시설 구축,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도청 내부 부서간, 시·군, 관계부처는 물론 주민과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한·중·중·한 FTA 산단지역 내 바이오식품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인증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범적으로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군산군도 선도지역 개발은 기존의 대규모 일괄 개발방식에서 중·소규모의 선도지역 개발을 통해 사업리스크 축소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만의 큰 장점인 광활한 부지와 수변을 활용해 각종 행사 개최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牛糞)연료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새만금호의 주요오염원 가축분뇨 발생 억제를 위해 동진강유역 3개 시·군의 낚고 방치된 휴폐업축사 철거를 통한 가축 사육두수 증가요소를 제거해 새만금 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쳐”

#### 특검 “방법 등 검토중”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위한 가장 절묘한 시점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마친 상태이고 그 방법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서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부분이 있으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대해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따라 일정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정동영 “김제 소멸”

#### 김제시민들 ‘발끈’

정동영 의원의 김제 소멸 발언에 김제 시민들인 발끈하고 나섰다.

정호영 도의원과 백창민·김영자 김제시의원, (가칭)김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가칭)은 2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동영 의원이 김제·전주 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이대로 가면 김제는 30년 뒤 소멸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의원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전주-완주를 통합시키겠다고 공약했다가 이제 와서 뜬금없이 전주-김제 통합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온 김제시민들의 노력을 폄하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7일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제-전주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김제는 이대로 가면 30년 뒤는 소멸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KTX가 서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의회, 설 맞아

####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

전주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40여명은 24일 모래내 시장을 방문하여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설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김 의장은 시장 상점 곳곳을 돌아보며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주차 문제 등 상점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은 거 같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재 기자



정호영 도의원과 백창민·김영자 김제시의원, (가칭)김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가칭)은 24일 도의회에서 “최근 정동영 의원이 김제·전주 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이대로 가면 김제는 30년 뒤 소멸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이번 고병원성 AI 방역활동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시해 많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로 중앙부처·시·도간 매일 개최되는 AI 방역 영상회의에서 전북도의 ICT를 활용한 신속한 방역활동은 물론 다양한 방역활동들이 여러차례 모범사례로 거론되면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유관기관은 물론 최일선 읍면동까지 영상회의, PC화상회의, 빅데이터, SNS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AI 방역 총동조치를 취

## 도, 선진 AI방역체계 구축

### ICT 활용 신속 조치 · 도·시군 참여 PC화상회의 도입

하고 있다.

또한,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및 논의하면서 회의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전북도는 AI 발병 즉시 중앙부처·도·시·군은 물론 군, 경찰,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방역지침, 최신 방역정보 등을 현장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빅데이터를 AI방역에 접목, AI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거뒀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협력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GPS가 고장난 차량을 일제 점검해 고발조치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간부회의, 사업소장 회의 시에 활용했던 PC화상회의를 전국 최초로 도·시·군·읍면동이 참여하는 AI 방역회의에 도입했다.

그 결과 철새도래지 인근지역 관리와 실처분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면... 행복한 교육, 긍정적 변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장비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